걷기 좋은 봄철, 기능성 워킹화 주목

워킹화 신고 더 오래, 더 편하게 걸으세요

K2 플라이워크 맥스, 완벽한 워킹밸런스 눈길
아이더 투어링 워크, 걷기 강도 따라 제품 세분화
노스페이스, 산행도 커버 가능한 하이킹화 선봬

걷기 좋은 계절. 오래, 멀리, 편히 걷기 위해서는 걷기 메커니즘에 최적화된 워킹화를 신는 것을 추천한다. 완벽한 워킹 밸런스를 제공하는 플라이워크 맥스 워킹화를 착용한 K2 전속 모델 수지. 사진제공 | K2

▲아이더 '투어링 워크'

골프 애호가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우스갯소리가 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즐기는 자는 개인레슨 받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뭐든지 즐겁게 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원본'에 개인레슨을 끼워 넣어 웃음을 자아낸다. 여기서 힌트를 얻는다면 이런 말도 있겠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편히 가려면 좋은 신발을 신어라."

걷기 좋은 계절이다. 푸른 하늘, 부드러운 햇살,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잎. 차가운 물 한 병만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신발도 때와 장소를 가린다"

오래, 멀리, 편하게 걷기 위해서는 역시 신발이 가장 중요하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이맘 때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워킹화 제품을 쏟아낸다. 신발도 때와 장소를 가린다. 등산에는 등산화, 러닝에는 러닝화가 있듯 걸을 때는 '걷기'에 특화된 워킹화가 좋다. '그 놈이 그 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활동에 따라 보행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발의 움직임에 맞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편히 가기 위한 '좋은 신발'은 결국 '용도에 최적화된 신발'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K2의 '플라이워크 맥스'는 '더 완벽해진 혁신의 워킹화'라는 홍보카피를 달고 나왔다. 가볍고 쿠셔닝이 뛰어난 데다 완벽한 워킹 밸런스를 제공한다. 쿠셔닝과 완충력의 비밀은 삼각형 그물 형태로 무게를 지탱시키는 트러스 구조의 미드솔(중창)에 있다. 여기에 3D 스테빌라이저를 적용했는데 이는 발의 뒤틀림을 잡아주고 에너지 리턴 역할을 한다. 끈이 없이 다이얼을 돌려 신발의 핏을 조절할 수 있는 보아 핏 시스템을 장착했다.

●걷는 거리에 따라 다른 제품 구성

아이더는 장시간, 장기간 걸으며 여행할 때 신기 좋은 '투어링 워크'를 출시했다. 다양한 지형의 길을 오랜 시간에 걸쳐 걷는 투어링 활동의 경우 발에 전해지는 피로도에 따라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물론 여행의 질까지 달라지게 된다. 투어링 워크는 적은 에너지로 더 멀리 걸을 수 있도록 쿠셔닝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 새로 개발해 적용한 '카본 웨이브'가 밀어주고 튕겨주는 강한 탄성력을 제공한다. 걷는 거리와 주변 환경에 따라 제품 구성을 세분화한 것도 흥미롭다. 투어링 워크 '해파랑 T-1800'은 하루 20km 이상 걷는 하드한 도보여행에 적합하다. 반면 '해파랑 T-1500'은 가벼운 걷기여행용이다. 하루 10km 미만의 단거리 투어링, 가벼운 야외활동이라면 '해파랑 T-750'이나 '해파랑 T-450'으로도 충분하다.

노스페이스의 '헥사 트리플'은 걷기뿐만 아니라 가벼운 산행까지 커버할 수 있는 하이킹화다. 자사의 스테디셀러 하이킹화인 '헥사(HEXA)'에서 영감을 얻은 어퍼(갑피) 디자인이 특징. 노스페이스가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성비 갑 아이템"이라고 자신하는 제품이기도 하다.

스포츠브랜드 프로스펙스의 '블레이드 BX'도 지갑을 자극하는 신발이다. 많은 양의 걸음을 빠르게 걷는 파워 워커를 위한 고기능성 워킹화다. 초경량 고탄성 소재인 페벡스를 적용한 발뒤꿈치의 신규 솔 'S-블레이드'가 걸을 때 에너지 회복을 높여준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노스페이스,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8년 연속 1위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1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에서 8년 연속 아웃도어 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됐다. 2000년 시작된 '대한민국 브랜드스타'는 브랜드가치 평가·인증 제도로는 유일하게 특허를 받은 '브랜드가치 평가모델(BSTI)'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주요 부문별 1위 브랜드를 선정한다. 영원아웃도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적 기술과 차별적인 디자인으로 업계 트렌드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발자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캐세이퍼시픽, 마일리지+현금 항공권 결제 도입

캐세이퍼시픽항공은 항공권 구매시 마일리지와 현금을 섞어 결제할 수 있는 새 결제방식 마일즈 플러스 캐시를 도입했다. 마일즈 플러스 캐시에서 마일리지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모든 등급의 좌석 항공권에 가능하다. 전액을 마일리지로 구매해도 되고, 마일리지와 현금 비율을 원하는 만큼 혼합해 결제할 수도 있다. 단, 최소 5000 마일리지는 사용해야 하며 마일리지의 현금 변환율은 항공편 출·도착지, 운임, 좌석 등급, 날짜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철도, 철도패스 '내일로…' 4월부터 상시 발매

한국철도(코레일)는 4월부터 철도여행패스 '내일로 두 번째 이야기'의 'YOUTH(청소년)'권을 상시 운영한다. 이용연령도 연말까지 만25세에서 만34세로 확대한다. '내일로 두 번째 이야기'는 연령에 따라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를 정해진 기간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이다. YOUTH 패스는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운영했으나 올해는 특정기간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철도는 4인 이하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여행상품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파라다이스시티, 키즈 액티비티 강화 패키지 출시

영종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는 봄날 키캉스(키즈+호캉스)를 계획하는 가족고객을 위해 키즈 액티비티를 강화한 '패밀리 프렌들리' 패키지를 출시했다. 객실 1박과 사계절 야외 온수풀, 놀이공간 키즈존 이용혜택 등을 담았다. 조식은 연회장 그랜드볼룸에서 제공한다.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투숙객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상 키즈 그림책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다. 한정객실로 출시해 5월 29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무섬마을부터 분천역 산타마을까지…영주·봉화 명소를 마음껏"

KTX·렌터카 이용 자유여행 '내게와, 영주' 출시
개별여행으로 안전하게…당일·1박2일 코스 운영

경북지역의 관광명소와 현지 관광두레를 체험하는 봄날 자유여행상품이 등장했다.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와 영주시는 한국철도(코레일)과 협업해 KTX를 타고 영주 지역을 여행하는 '내게와, 영주'를 출시했다. '내게와 영주'는 1월 개통한 중앙선 KTX 이음열차를 타고 경북 영주역까지 가서 렌터카로 지역 관광지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청량리에서 경북 안동까지 달리는 중앙선 KTX이 생기면서 경북 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코로나19 이후 단체보다는 개별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에 착안해 기획했다.

당일여행코스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지역에서 하루를 묵는 1박2일 코스는 매주 화요일과 목~토요일에 진행한다. 1박2일 코스에서는 대중교통편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던 봉화지역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다.

당일여행의 경우 추천코스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체험(만수주조 등)-부석사-여우생태관찰원-소수서원(선비촌)-영주전통시장 저녁의 일정으로 돌아보거나, 부석사 대신 무섬마을을 돌아보는 일정이 있다.

무섬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조선시대 후기 사대부 고택과 정자로 이루어져 고즈넉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소수서원은 주세붕이 1541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명륜당, 일신재와 직방재 등 선비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다. 한국 화엄종의 근본도량으로 국보인 무량수전과 소조여래좌상으로 유명한 부석사,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토종여우의 복원을 위해 개원한 여유생태관찰원도 놓치면 아까운 곳들이다. 1박2일 코스에서는 첫날 분천역 산타마을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 돌아보고, 다음날 영주를 자유여행으로 즐길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체험비를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영주시도 관내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영주사랑 상품권을 지원한다. 이광수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장은 "경북을 찾는 개별관광객들이 편하고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렌터카 이용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여행 상품 '내게와, 영주'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심판서 고택의 야경.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

예약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티몬, 네이버여행, 현대몰, G마켓 및 한국철도공사 협력여행사인 여행공방에서 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2일(금) 음력: 2월 21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오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한다. 관재수를 조심해야 한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날이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는 고독하나 어느 날 갑자기 뜰 것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혼돈의 시기이다. 전환기와 같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청색 길방:동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지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횡재수가 있는 날이다. 열심히 움직여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이롭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오늘은 화개이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신중하고, 묻기를 거듭하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자제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라.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신경이 예민해지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2일(금)

지역	최저	최고
서울	10	20
인천	10	18
춘천	7	21
강릉	8	16
대전	10	21
전주	11	23
광주	12	23
대구	11	19
부산	13	19
창원	11	20
제주	15	22

지역 강수 확률(오전/오후)
날씨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49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